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June 2007

8.557799



코렐리:
바이올린소나타 Op.5 Nos.7-12
(라 폴리아 포함)
프랑소와 페르난데즈
(바로크 바이올린)
글렌 윌슨 (하프시코드)

8.57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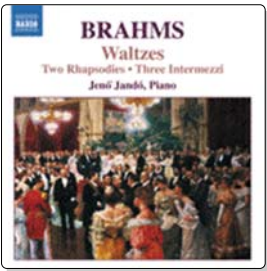
루셀:
교향곡 3번, 〈바쿠스와 아
리안느〉 모음곡 1, 2번
스테판 드네브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8.570285



스탠포드:
교향곡 4번, 7번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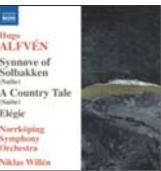
브람스:
2개의 랩소디, 왈츠 Op.39,
헨델 주제와 변주곡
예뇌 안도 (피아노)

8.570227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Op.23 & 32
엘나 네블신 (피아노)

8.559828



알프벤:
솔바겐의 신노베,
전원악합주곡, 엘레지
미클라스 빌렌
노르코핑 심포니 오케스트라

8.559828



타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
관현악합주곡, 탬보르
레너드 슬래트킨
내쉬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8.559823



로드리고:
피아노 작품집 Vol.2
아르투르 피사로 (피아노)

8.559277



조플린:
피아노 랩 음악 Vol.2
벤저민 로옴 (피아노)

8.570237



바가텔
(쿠프랭, 베토벤, 생상,
라이프, 리스트, 바르톡,
데니소프 등)
줄리아 질베르퀴트 (피아노)

8.557921



브리자:
피아노 작품집 Vol.2
애슐리 웨인 (피아노)

8.557807



바리오스:
기타 작품집 Vol.3
제프리 맥파든 (기타)

8.557924



뒤뤼플레:
오르간 작품 전집
헨리 페어즈(파리) 도티유
노트르담의 카바예-폴 오르
간

8.559180



코릴리아노:
현악사중주, 스냅샷 외
프리드만:
현악사중주 2번
코릴리아노 현악사중주단

8.559283



에릭슨:
최근의 영감들, 2개의 노래,
High Flyer, Summer Music
콘티눔

8.559263



시에라:
카리브 악센트의 새로운
음악들
콘티눔

8.57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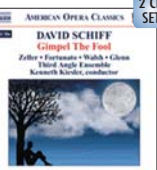
시벨리우스:
가곡집 vol.2
한나 유르무 (테너)
요우니 소메피 (피아노)

8.660207-08



로시니:
오리 백작
여러 가수들
브로노 체코 체임버 솔로이
스즈
브라드 코헨

8.669010-11



슈프:
비보 감멜
여러 가수들
췌드 앙글 앙상블
케네스 키슬러

8.669012-13



한슨:
메리 마운트
여러 가수들
시애틀 심포니와 합창단
제러드 슈워츠

8.558200-01



바르톡 포트레이트
(바르톡의 작품과 생애)
미크로코스모스 현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현악사중주, 관현악합주곡 외

8.110987



카잘스:
앙코르와 편곡 Vol.5
(1920-25년 녹음)
쇼팽 이상곡, 엘가 사랑의
인사, 포퍼 가보트,
부르흐 콜 니드라이, 헨델 미뉴
에트 외

DVD New Release

라모 조로아스트르
첼리비다케가 지휘하는 환상교향곡

Cover Story

말러, 브루크너로 명성 얻었던 20세기 독일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트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www.aulosmedia.co.kr

말러, 브루크너로 명성 얻었던 20세기 독일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트 Klaus Tennstedt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1926년 6월 6일 독일 중동부 메르제부르크(Merseburg)에서 태어났다.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공부한 그는 1948년 바이올린을 들고 할레 시립 극장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마스터로 일하면서 경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후 손가락 부상으로 더 이상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잠시 좌절의 시간을 딛고 극장에서 가수들을 지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지휘로 전향했다. 텐슈테트가 본격적인 지휘자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958년 드레스덴 오페라의 지휘자 직을 얻으면서부터였다. 바뀌 들어선 길이

운명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텐슈테트에게는 일이 잘 풀려나갔다. 1962년에는 슈베린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도 일했다. 하지만 텐슈테트는 곧 동독에서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1971년에는 동독을 떠날 결심을 한다. 텐슈테트는 동독을 떠나 스웨덴으로 가서 예테보리 극장의 지휘자,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잠시 일했다. 그러다가 1972년 북독일 킬 오페라에 총감독직을 수락하며 서독으로 들어왔고, 이때부터 서방세계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북아메리카 무대에 얼굴을

비쳤고 곧바로 그해 12월에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함으로써 미국 무대에도 데뷔했다. 이때 지휘했던 음악이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이었는데, 이 시기 텐슈테트의 인기는 너무도 높아 아메리카 대륙의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1983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베토벤의 <피델리오>를 지휘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첫 오페라 데뷔 무대를 가졌다. 폭발적인 찬사와 함께 미국의 유수 오케스트라가 텐슈테트 모셔가기에 열중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두루 지휘한 텐슈테트는 당시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존경하는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이에 영국 무대에서도 중요한 활동을 보여줬는데, 1976년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첫 런던 데뷔를 했었고, 1977년에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계약하고 일하기도 했는데, 그 인연으로 1980년에는 그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영입되었고, 1983년에는 솔티의 뒤를 이어 런던 필의 수석 지휘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 런던 필에 오기 전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함부르크의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로도 일했다.

이렇게 텐슈테트의 전성기는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였다. 환갑의 나이에 이르러 암 선고를 받게 된 텐슈테트는 1987년 중반쯤에는 지휘활동을 대폭 줄여야 했고, 1990년에는 급기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직에서도 내려와야 했다. 1991년 11월, 그리고 1993년 5월에 말러의 교향곡 6번과 7번을 가지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다시 잡게 되지만, 의사의 권유로 1994년 10월에는 모든 지휘활동을 접었고, 1998년 1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지휘봉을 잡고 연주했던 음악이 말러의 교향곡이었지만, 텐슈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뛰어난 말러 지휘자로서의 그것이다. 물론 텐슈테트는 말러의 교향곡 전곡 녹음을 완성했다. 1977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맡고 바로 시작된 말러 사이클은 첫 작업부터 폭발적인 찬사를 이끌어냈고, 뛰어난 해석과 녹음을 들려준 공로로 1980년에는 빈의 말러 협회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EMI로 발매된 텐슈테트의 말러 교향곡들은 오늘날에는 자주 거론되는 편이 아니지만, 런던 필의 따스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런 해석, 매혹

적인 아날로그 음향으로 LP 시절부터 많은 애호가들을 매료시켜왔다.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경쟁음반들과 명반들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도 텐슈테트 해석에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미감의 가치는 퇴색하지 않았다. 텐슈테트의 브루크너 음악이 말러의 음악에 준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최후까지 그의 오케스트라였던 런던 필의 중요한 브루크너 음반으로는 자체 레이블로 나온 교향곡 4번이 크게 주목되었다. 뜨거운 열정의 연주다. 그 외 거장한테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바그너, 프로코피예프 등 좋은 녹음들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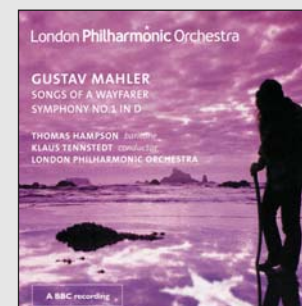
LPO에서 나온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앨범들



LPO-0003

WAGNER OPERAS :
Orchestral Excerpts From

Klaus Tennstedt. con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12

GUSTAV MAHLER :
Songs of a Wayfarer
Symphony No.1 in D

Thomas Hampson. baritone
Klaus Tennstedt. con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08 [2CDs]

HAYDN :
The Creation

Klaus Tennstedt. con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14

BRUCKNER :
Symphony No.4 in E flat 'Romantic'

Klaus Tennstedt. cond.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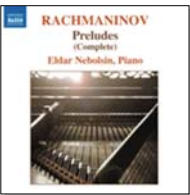


Naxos 8.557799

코렐리: 바이올린소나타 Op.5 Nos.7-12 (라 폴리아 포함)

프랑소와 페르난데즈 (바洛克 바이올린)
글렌 윌슨 (하프시코드)

바洛克 바이올린소나타의 규범을 완성했던 코렐리의 걸작을 18세기 오케스트라, 라 샤펠 르와얌 등의 악장을 거쳤던 정상급 바洛克 바이올리니스트 프랑소와 페르난데즈와 저명한 음악학자 겸 하프시코드 연주자 글렌 윌슨이 함께 연주하였다. 특히 마지막 곡 <폴리아>는 수많은 바洛克 바이올린 레퍼토리들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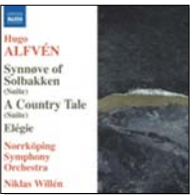


Naxos 8.570327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Op.23 & 32

엘다 네볼신 (피아노)

1903년과 1910년에 완성한 두 전주곡 시리즈는 라흐마니노프를 대표하는 피아노 솔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시리즈 포함 23곡의 전주곡은 Cb단조를 제외한 모든 조성에 걸쳐있는데, 이 음반에는 유명한 Cb단조의 전주곡 Op.3-2를 덧붙임으로써 바흐, 쇼팽,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들 처럼 모든 조성에 걸친 전주곡 세트를 완성하였다. 2005년 리히터 콩쿠르 우승자인 네볼신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828

알프벤: 솔바켄의 신뇌베, 전원이야기, 엘레지

미클라스 빌렌 / 노르괴핑 심모니 오케스트라

후고 알프벤은 베르발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스웨덴 출신 작곡가다. 이 음반에 수록된 두 모음곡은 모두 영화음악에서 간주된 것들로, 우아한 목가풍의 선율들이 전원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들이다. 영화는 잊혀졌으나, 알프벤의 아름다운 음악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엘레지는 자국의 동료작곡가 쇠그렌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후일 교향곡 4번에 전용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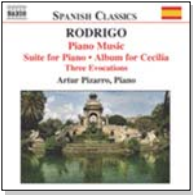


Naxos 8.559328

타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 관현악협주곡, 탐보르

레너드 슬래트킨 / 내쉬빌 심모니 오케스트라

타워의 대답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은 많은 미국의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made in America>는 미국의 비공식 국가인 'America the beautiful'에 기초한 관현악 환상곡으로 미국 50개주 모두에서 연주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바르토크와 루토스와프스키의 작품에 필적할 정도로 연주자들의 개인기와 앙상블의 집중도를 요구하는 명작이다.



Naxos 8.557923

로드리고: 피아노 작품집 Vol.2

아르투르 피사로 (피아노)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아랑훼즈 협주곡으로 유명한 메인 작곡가 로드리고는 신체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기교적인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 그의 두번째 피아노 작품집에는 어린 딸의 조그마한 손을 옆두에 두고 완성한 소품들부터 기교적인 대곡인 카스티야 소나타, 옛 춤곡들에 기초한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이 수록되었다. 안달루시아의 고도 세비야에 한정된 작품인 3개의 에보카시오네스 등이 수록되었다.



Naxos 8.570245

루셀: 교향곡 3번, <바쿠스와 아리안느> 모음곡 1, 2번

스테판 드네브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저명한 프랑스 작곡가 루셀의 대표작 두 곡을 수록하였다. 교향곡 3번은 20세기에 완성된 가장 위대한 프랑스 교향곡으로 칭송받는 걸작으로, 작곡가의 신고전주의적인 음악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2막의 발레에서 발췌한 <바쿠스와 아리안느>모음곡에서는 작곡가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빛을 발한다. 로얄 스코티시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상임으로 취임한 프랑스의 젊은 지휘자 스테판 드네브의 낙소스 데뷔음반.



Naxos 8.559277

조플린: 피아노 랙 음악들 Vol.2

벤저민 로엠펙 (피아노)

스코트 조플린은 오페라, 관현악곡, 발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다수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이름을 빛나게 만든 것은 바로 랙타임 양식의 피아노 소품들이었다. 지난 1집에 이어 그의 대표적인 랙타임 작품들을 담은 두번째 음반이 발매되었다. 재치있는 Stoptime Rag, 향수에 젖은 Gladiolus Rag, 조플린의 마지막 걸작인 Reflection Rag 등을 수록



Naxos 8.570237

바가텔(쿠프랭, 베토벤, 생상, 리야도프, 리스트, 바르톡, 데니소프 등)

줄리아 질베르퀴트 (피아노)

쿠프랭에서 데니소프에 이르는 3세기에 걸친 다양한 바가텔을 망라한 음반. 바가텔은 하찮은 것을 뜻하는 프랑스어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대중친화적인 능력을 과시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있다. 러시아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 질베르퀴트는 1994년 빈 콩쿠르의 우승자로 리야도프, 체렘닌, 데니소프 등이 남긴 숨겨진 보석들의 진가를 찬란하게 드러낸다.



Naxos 8.557921

브리지: 피아노 작품집 Vol.2

애설리 위스 (피아노)

프랑크 브리지는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음에도 후기낭만시대의 감성적인 음악세계를 고수했던 인물이다. 드뷔시에 필적하는 화려한 색감의 관현악곡들이 유명하나, 그의 피아노작품들 역시 주목할 가치가 많다. 살롱풍의 감미로움을 추구했던 초기작서 전쟁이후 어둡고 심각한 음악으로 변모했던 후기작까지 망라하였으며, 작품의 성격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는 영국의 기대주 애설리 위스의 다채로운 표현력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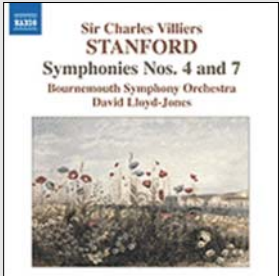


Naxos 8.557807

바리오스: 기타 작품집 Vol.3

제프리 맥파든 (기타)

파라과이 출신의 작곡가 아구스틴 바리오스는 사망 이후 30여년 동안 세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타연주자 출신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이름으로 평가된다. 이 음반은 그의 소품들을 망라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의 caazapa, 한때 사랑했던 오페라가수가 착용했던 보석의 이름을 딴 작품인 Medallon Antiguo 등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Naxos 8.570285

스탠포드: 교향곡 4번, 7번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탠포드는 엘가 직전에 활약했던 가장 중요한 영국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7곡의 교향곡은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의 영향이 짙게 느껴질 정도로 보수적인 악풍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간결한 7번 교향곡은 멘델스존 스타일의 경쾌한 악상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보다 큰 규모의 4번은 민요풍의 아름다운 선율과 비극적인 패시지가 절묘하게 조합된 걸작이다.



Naxos 8.557924

뒤뤼플레: 오르간 작품 전집

헨리 페어즈 (파리 도토이유 노트르담의 카바에-클 오르간)

뒤뤼플레는 드뷔시와 라벨 등의 인상주의 음악과 포레로 대표되는 그레고리안 스타일의 음악을 적절히 접목시켰던 작곡가다. 레퀴엠이 유명하지만, 오르간 장르에서도 프랑크, 비에르네, 뒤프레, 당글레로 이어져오던 프랑스 오르간 악파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던 인물이다. 사교사한 동료 제양 알랭을 추모하는 작품인 프렐류드와 푸가는 작곡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오르간 작품이다.



Naxos 8.559180

코릴리아노: 현악사중주, 스냅샷 외 / 프리드만: 현악사중주 2번

코릴리아노 현악사중주단

존 코릴리아노(1938년생)는 현재 미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래미상과 풀리처상을 수차례 수상했으며, <레드 바이올린>으로 아카데미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악사중주는 작곡가에게 두 개의 그래미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동경하는 듯한 선율의 아름다움이 특징일 만하다. 코릴리아노의 제자인 프리드만의 현악사중주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283

에릭슨: 최근의 영감들, 2개의 노래, High Flyer, Summer Music

콘티눔

로버트 에릭슨(1917-97)은 캘리포니아 일대의 젊은 작곡가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존경을 받았던 거물 작곡가였다. 그는 마이크로토날에서 전자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사조에 걸쳐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High Flyer는 플루트주자가 연주 도중 마우스피스를 통해 말을 하게끔 고안된 독특한 작품, Summer music은 동양의 영향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Naxos 8.559263

시에라: 카리브 악센트의 새로운 음악들

콘티눔

로베르토 시에라(1953년생)는 다양한 전통 민요와 카리브 연안의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도입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해내었다. Conjur와 Vestigios rituales는 아프로-쿠바의 주술전례에 기초한 작품,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기교적인 작품인 Cinco bocetos는 카리브 팝 뮤직과 푸에르토리코의 산게구리 율음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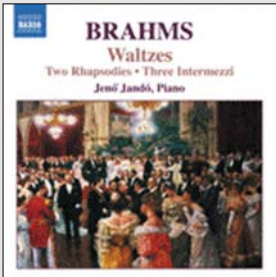


Naxos 8.570020

시벨리우스: 가곡집 vol.2

한누 유르무 (테너) / 요우니 소메로 (피아노)

시벨리우스는 100여 편 가량의 가곡을 남겼다. 대부분은 스웨덴어 가사이고, 소수의 핀란드어와 독일어 가사의 작품이 남아있다. 그의 가곡들은 교향곡과 관현악곡의 위용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북구 특유의 어두운 색조와 생동감 있는 개성 그리고 심도 깊은 뎡랑폴리를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다.



Naxos 8.570290

브람스: 2개의 랩소디, 왈츠 Op.39, 헨델 주제의 푸가와 변주곡

예뇌 안도 (피아노)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예뇌 안도의 최신작. 너무나 유명한 Ab장조의 곡을 포함하는 16곡의 왈츠는 원래 피아노 이중주를 위해 완성된 작품이나, 이내 피아노독주용으로 편곡되었다. 두 개의 랩소디는 관현악곡을 방불케하는 치밀한 텍스처를 보여주는 작품들.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중 에어에서 선율을 빌린 헨델 주제의 변주와 푸가는 동경하던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Naxos 8.660207-08

로시니: 오리 백작

여러 가수들 / 브로노 체코 체임버 솔로이스츠 / 브라드 코헨

십자군시대의 프랑스 변방을 배경으로 하는 로시니의 2막 오페라 <오리 백작>은 작곡가의 마지막 코믹 오페라에 해당한다. 베를리오즈는 이 작품을 두고 '완벽한 걸작'이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화려한 선율과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이 음반은 2002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젊은 로시니 가수들의 탄탄한 기량이 돋보이는 수연이다.



Naxos 8.669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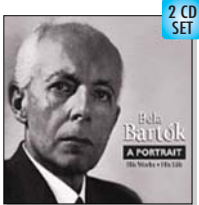
슈프: 바보 김펠

여러 가수들 / 씨드 앵글 앙상블 / 케네스 킬슬러

저명한 유대계 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아이작 싱어의 단편 <바보 김펠>에 기초한 데이비드 슈프(1945년 생)의 2막 오페라. 작곡가 데이비드 슈프는 엘리엇 카터의 제자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포틀랜드 리드 칼리지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중견 음악교사 겸 작곡가이다. 이 오페라는 1975년 피아노반주로 초연되었으나, 이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확대 편곡되어 미국 현대 오페라의 주요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Naxos 8.669012-13



Naxos 8.558200-01



Naxos 8.558107-10



헨슨: 메리 마운트

여러 가수들 / 시애틀 심포니와 합창단 / 제러드 슈워츠

하워드 헨슨(1896-1981)은 20세기 후반까지 낭만주의 성향의 음악을 고집했으며, 특히 시벨리우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작곡가다. 1933년에 완성된 그의 3막 오페라 〈메리 마운트〉는 미국에 막 정착한 청교도들 사이에서 에피소드를 흥겹게 표현한 작품으로, 작곡가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과 견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뒷받침된 미국 오페라사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바르톱 포트레이트 (바르톱의 작품과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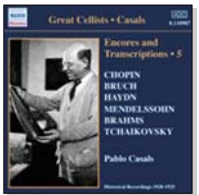
미크로코스모스, 현,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현악사중주, 관현악협주곡 외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인 벨라 바르톱의 생애와 대표작을 이 음반 하나로 조망할 수 있다. 40트랙 이상의 작곡가의 대표적인 걸작을 간추렸으며, 저명한 음악 칼럼니스트 스티븐 존슨의 8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에세이가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내지에는 바르톱과 관련된 진귀한 기록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A-Z of Pianists (피아니스트 대사전)

트리너티 칼리지의 강사이자 인터내셔널 피아노의 고정기고자인 조나선 섬머즈가 정리한 명실상부한 피아니스트 대사전. 아르헨티나에서 차도라에 이르기까지 레코딩 역사를 빛내었던 300명의 피아니스트들의 생애와 경력, 레코딩을 86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소책자 안에 총정리하였다. 아울러 4장의 CD에는 20세기 전반기를 빛내었던 역사적인 거장들(호로비츠, 부조니, 라흐마니노프, 박하우스, 아라우, 피셔, 루빈시타인, 미켈란젤리, 리파티, 고도프스키, 기제킹, 슈나벨 등등)의 명연주 76트랙을 수록하였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0987



Naxos 8.111226

카잘스: 앙코르와 편곡 Vol.5 (1920-25년 녹음)

쇼팽 야상곡, 엘가 사랑의 인사, 포퍼 가보트, 부르흐 콜 니드라이, 헨델 미뉴에트 외

1916-25년 사이 파블로 카잘스가 남긴 어쿠스틱 78회전 레코딩을 복각해내었던 앙코르와 편곡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포퍼의 가보트,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 브람스의 사포찬가, 큐이의 자장가, 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 간주곡, 루빈시타인의 로망스, 맥도웰의 들장미에게, 부르흐의 폴니드라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수록

J 슈트라우스 왈츠들의 피아노 편곡 (1930-54년 녹음)

도흐나니, 타우치히, 그뤼펠트, 펜나리오 등의 편곡들

후기낭만주의의 대미를 장식하던 수많은 피아노의 거장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초절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즐겨 이용했다. 솔츠-엘버의 콘서트 아라베스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샤생의 콘서트 파라프레이즈 '예술가의 생애', 슐호프의 '새로운 피치카토 폴카', 템플톤의 즉흥곡 '빈 숲 속의 이야기', 펜나리오의 '황제왈츠', 슈트의 콘서트 파라프레이즈 '박쥐' 등을 편곡자 자신들의 연주로 담았다.



Naxos 8.111237



Naxos 8.111257

스메타나: 나의 조국 전곡 (1954년 녹음)

바츨라프 탈리히 /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지휘자계보의 대부라고도 할았던 이름인 바츨라프 탈리히. 그가 1952년 수프라폰 레이블을 통해 녹음했던 '나의 조국'이 훌륭히 복각되었다. 루돌피눔 드보르작 홀의 뛰어난 어쿠스틱과 스메타나에 대한 탈리히의 열정,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의 체코 필의 뛰어난 합주력이 오버트-손의 손길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J. 슈트라우스 2세: 빈 기질 (1954년 녹음)

슈바르츠코프, 갓다, 쿤츠 외 / 필하모니아 / 오토 악케르만

레하르의 두 작품(메리위도우, 미소의 나라)과 슈트라우스의 〈박쥐〉, 〈베니스의 밤〉에 이어 슈바르츠코프의 명연기를 만끽하게 되는 또 하나의 빈 오페레타. 만능테너 니콜라이 게다와 빈 국립극장의 인기스타였던 에리히 쿤츠와 카를 뢰허 등 당대의 명가수들과 함께 흥겨운 빈 선율의 한 마당을 펼친다.



www.naxos.com

Marco P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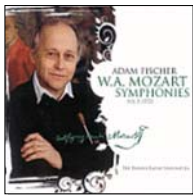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Marco Polo 8.225329-31



Dacapo 6.220540



Dacapo 6.220531

지크프리트 바그너: 코볼트 (도깨비)

여러 가수들 / 누렘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 프랑크 슈트로벨

지크프리트 바그너는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와 코지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그 역시 17편의 오페라를 남긴 작곡가였다. 그의 작품들은 아버지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후기낭만스타일을 고수했기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다. 코볼트는 그의 3번째 오페라로 중세 독일 괴담에 열광했던 이 작곡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작이다.

모차르트: 교향곡 15-18번 (Hybrid-SACD)

아담 피셔 /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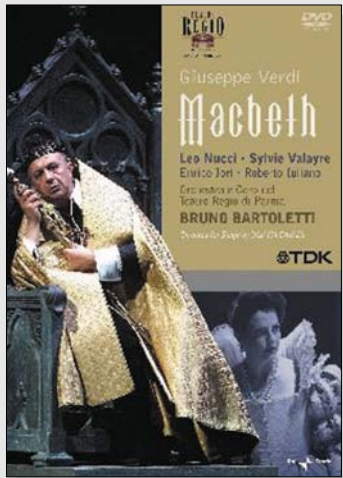
만하임 국립극장 음악감독시절, 시노폴리의 급서로 위기에 빠졌던 바이로이트의 반지 프로덕션을 훌륭히 대타로 치루어내었던 아담 피셔. 동생(이반 피셔)과 더불어 헝가리 음악계의 기대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하이든 교향곡 전집을 완성했던 소수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고전교향곡에 대한 그의 심미안이 모차르트가 16세 때 남긴 4편의 교향곡들에서도 다시금 빛을 발한다.

무브먼트즈 (리코더를 위한 현대 협주곡들) (Hybrid-SACD)

미칼라 페트르(리코더) /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 / 란 슈이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를 위해 작곡된 리코더협주곡 3편을 수록하였다. 스페인 작곡가 아바르 고스의 '노던협주곡'은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케하는 역동적인 리듬과 리코더의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인다. 스웨덴 작곡가 비르즈의 'Pipes & Bells'는 명상적인 전반부와 뚜렷한 다이내믹의 대비가 칸첼리와 닮았다. 폴란드 상 수상자인 미국 작곡가의 스틱키의 '에워드'는 리코더의 표현영역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TDK DVD



TDK DVWW-OPMACPA

베르디: 오페라 '맥베트'

세계 최고의 여류 연출가
릴리아나 카바니의 귀중한 오페라 DVD

여류 오페라 연출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릴리아나 카바니(1933~)일 것이다. 1974년 <비엔나 호텔의 야간배달부>로 세계적 영화감독의 반열에 오른 카바니는 지금도 현역 영화감독인 동시에 1979년부터 오페라 연출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중 신예 시절의 로베르토 알라냐가 출연했던 라 스칼라의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오랜만에 새 영상물이 등장했다. 2006년 6월에 파르마의 레지오 가극장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맥베트>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원작으로 하는 <맥베트>는 스코틀랜드 왕위를 찬탈한 맥베트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음산하면서도 박력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레이디 맥베스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렬하여 그녀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카바니는 무대 위 양편에도 객석을 특설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극을 지켜보도록 한다. 브레히트적 상상력의 산물인 동시에 극중극의 새로운 표현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친절한 연출인데, 권력욕에 불타는 아내

와 발설하지 말아야 할 예언을 뱉어내는 마녀들에 의해 파멸되는 맥베트의 모습을 레오 누치가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중 한사람인 프랑스의 실비 발레르가 레이디 맥베트를 열창한다.

[보충 자료]

○ 베르디의 <맥베트>는 전세기 이전에 작곡된 비교적 초기 오페라임에도 그 음산한 힘으로 인해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작품이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전혀 배제된 채 셰익스피어 원작의 어두운 분위기를 재현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세계에는 각광 받는 여류 오페라 연출가가 몇몇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윗세대에 속하고 먼저 명성을 얻은 사람은 이탈리아의 릴리아나 카바니이다. 나치즘의 상처를 다룬 1974년 작품 <비엔나 호텔의 야간배달부>로 세계적 영화감독의 반열에 오른 카바니는 일관된 주제에 의한 '독일 3부작'을 위시하여 지금도 활발하게 영화를 만드는가 하면 라 스칼라 오페라와 파리 오페라를 중심으로 오페라 연출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라 스칼라에서 카바니의 인기는 대단히 높다.

○ 레오 누치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바리톤이며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력적인 활동을 벌인다. 그는 대사의 극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가수로 명성이 높다. 우리나라에는 덜 알려진 편이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실비 발레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특히 강인한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역에 잘 어울린다.



TDK DVWW-OPDPSC

도니제티: 오페라 '돈 파스칼레'

희극 오페라의 진정한 걸작을 격찬 받았던 라 스칼라 공연으로!

도니제티는 가장 비극적 오페라는 물론 <사랑의 묘약>처럼 유쾌한 가작도 만들었다. 다만 <사랑의 묘약>은 전형적인 희가극이 아니라 일종의 로맨틱 코메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니제티를 대표하는 희가극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돈 파스칼레>라는 것이다.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던 만년의 작품이지만 극에 담긴 해학과 활기는 놀라울 정도다.

돈 파스칼레는 아내가 돈을 낭비할까봐 결혼도 마다한 구두쇠! 재산을 조카 에르네스토에게 물려줄 생각이지만 조카는 노리나라는 과부를 사랑한다. 가진 것 없는 과부가 재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한 파스칼레는 이 결혼을 극력 반대하고 대신 자신이 젊은 여인과 결혼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에르네스토와 파스칼레의 주치의가 짜낸 계략! 젊은 여인의 정체는 바로 노리나였던 것이다. 하루 만에 여자의 낭비벽에 질린 파스칼레는 원래대로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허락하는데...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1994

년 라 스칼라 실황이다. 대표적인 바소 부포(희극적 베이스) 페루치오 푸를라네토가 타이틀 롤을,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귀여운 여인' 누치아 포칠레가 노리나를 부른다. 악보 그대로 요구하는 무티의 의도를 완벽하게 처리한 출연진의 역량이 돋보이는 결정판이다.

[보충 자료]

○ TDK는 대부분 유럽의 최신 오페라 실황을 신보 DVD로 내놓고 있지만 이미 지난 자료 중에서도 공연 당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자료 중에서 엄선하여 DVD로 발매하고 있다. 1994년 라 스칼라 실황인 <돈 파스칼레>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며 당시에 호평을 받은 공연이었다.

○ 스테파노 비치올리의 연출과 수잔나 로시 조스트의 무대는 로시니, 도니제티 사대 이래의 전통에 너무나 충실해서 일견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덕션은 지금도 이탈리아의 여러 가극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있다. 특히 정원 장면은 무척 아름답다.

○ 노리나 역을 부른 누치아 포칠레는 모차르트와 로시니 오페라의 가벼운 리릭 소프라노로 출발했고 작고 귀여운 외모도 여기에 어울렸다. 나중에는 러시아 오페라인 <에프게니 오네긴>의 타치아나를 불러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는 등 방향전환에도 성공했다.

○ 돈 파스칼레 역의 페루치오 푸를라네토는 <돈 조반니>의 레포렐로 역으로 특히 유명하다. 요즘에는 베르디 오페라는 물론 <보리스 고두노프>로도 환영받고 있다. 목소리와 풍채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베이스이며, 자동차 경주와 와인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에 유엔 인권대사까지 지냈다는 팔방미인이다.

Donizetti Don Pasquale



TDK DVWW-OPLACEN

로시니: 오페라 ‘라 체넨톨라’

20세기 초엽으로 무대를 옮긴 이탈리아판 신데렐라 스토리.

고약한 계모 슬하에서 온갖 꾀은일을 말아하느라 재투성으로 지내던 처녀가 왕자비로 변신하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유럽 일대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민화로 전승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신데렐라를 역시 재투성이 아가씨란 뜻의 ‘체넨톨라’라 부르는데, 로시니에 의해 희극 오페라로 작곡되어 요즘엔 <세비야의 이발사>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계모 대신 계부가 등장하고, 신데렐라를 사랑하는 왕자는 시종으로, 시종은 왕자로 변장하는 등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아름다운 무대로 정평 있는 연출가 폴 커란은 2004년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을 위한 <라 체넨톨라>에서 그 배경을 1912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가장 벌어졌던 시기이며 아르누보의 멋진 양식을 무대 미술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이 프로덕션은 2006년 5월에 제노아의 카를로 펠리체 극장에서 재연되었는데 본 DVD는 그 실황을 담은 것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로시니 메조소프라노인 소냐 가나시가 타이틀롤을 부르고 주목해야 할 레제로 테너 안토니오 시라구사가 라미로 왕자를 열창한다.

[보충 자료]

○ <라 체넨톨라>는 <세비야의 이발사>보다 불과 11개월 늦은 1817년 1월에 초연되었다. 따라서 <세비야의 이발사>의 부파적 재미는 물론 신데렐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동화적 환상성과 애잔함까지도 겸한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인공의 피날레 아리아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자라나’는 엄청난 인기를 모아서 젊은 시절의 쇼팽이 이 선율을 이용해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으로 작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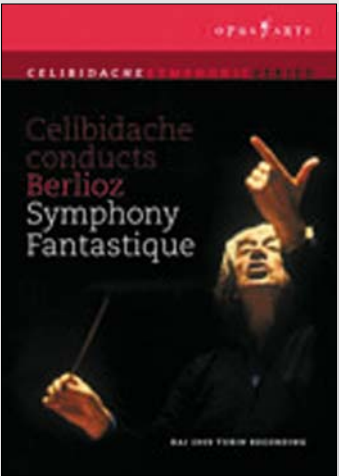
○ 제목과 인명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신데렐라나 이 오페라의 제목으로 쓰인 체넨톨라는 ‘재투성이 아가씨’란 똑같은 뜻이다. 따라서 고유인명은 아니다. 이 오페라에서 재투성이 아가씨의 이름은 천사와 같다는 의미의 안젤리나이다. 참고로 프랑스의 마스네도 신데렐라 스토리를 <샹드리옹>이란 오페라로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뤼세티다.

○ 이 공연에서 주역을 맡은 소냐 가나시는 1992년 로마에서 <세비야의 이발사>로 데뷔한 이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특히 로시니 오페라에 가장 큰 특기를 지닌 메조소프라노로 군림하고 있다. 상대역인 라미로 왕자 역의 안토니오 시라구사는 가장 전형적인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 전문 테너이며 현재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칠레 출신의 후양 디에고 플로레즈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힐 만큼 출중한 레제로의 자질을 과시 중인 시칠리아 출신의 유망주이다.

Rossini La Cenerentola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77D

덕분에 기대이상의 놀라운 해상도의 화질로 다시 태어났다. 만년의 영상들에서 경험했던 노대가의 풍모와 전혀 다른, 숫사자의 맹렬한 안광을 고스란히 뿜어내는 전성기 때의 첼리비다케의 모습을 이 영상물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첼리비다케의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토리노 이탈리아 국영방송(RAI) 교향악단

57세의 첼리비다케가 뿜어내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만난다. 루마니아 출신의 대지휘자 세르지우 첼리비다케는 생전에도 음악계의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그는 연주는 물론 리허설에서도 작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최면상태로 몰고 갔었다. 또한 항상 암보를 고집했던 작품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단원들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해석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오퍼스 아르테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녹화되었던 거장의 희귀 연주 실황들을 ‘첼리비다케 심포닉 시리즈’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 발굴해낼 예정이다. 베를리오즈의 걸작 ‘환상교향곡’을 수록한 이 영상물은 1969년 토리노 소재의 이탈리아 국영방송(RAI)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 프랑스 근대 레퍼토리를 즐겨 다루었던 첼리비다케답게 자신만의 강렬한 카리스마로 변화무쌍한 이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해내었다. 묵직한 보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두 악장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역시 첼리비다케’라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방송용 녹화영상물답게 4:3 흑백화면에 모노 오디오 채널의 다소 열악한 원 소스이지만, 오퍼스 아르테 기술진의 정성스런 노력 덕분에 기대이상의 놀라운 해상도의 화질로 다시 태어났다. 만년의 영상들에서 경험했던 노대가의 풍모와 전혀 다른, 숫사자의 맹렬한 안광을 고스란히 뿜어내는 전성기 때의 첼리비다케의 모습을 이 영상물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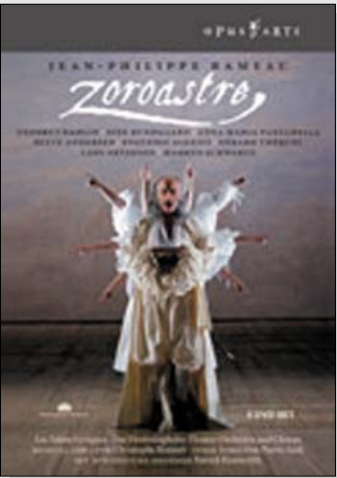


Opus Arte OA 0978D

첼리비다케의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슈베르트: 교향곡 2번 (+ 케루비니 서곡)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토리노 이탈리아 국영방송(RAI) 교향악단

초정밀 양상블로 가슴 녹이는 기념비적 영상물
지금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하나의 전설이었던 위대한 지휘자 첼리비다케가 1969년 토리노에서 남긴 녹음이다.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39번과 슈베르트의 섬세한 교향곡 2번을 연주하고 있는데, 첼리비다케가 밀라노 스칼라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종종 이탈리아의 다른 오케스트라들과도 연주활동을 하던 시기의 기록이다. 완벽한 균형과 절묘한 색채감을 느끼게 하는 블렌딩, 초정밀 양상블 그리고 찬란한 광휘를 위해 단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첼리비다케 음악의 정수가 느껴진다. 부드럽고 깔끔한 흑백화면이다. 케루비니의 서곡 한 편도 보너스로 담겼다. 79분.



Opus Arte OA 0973D

화무쌍한 무대가 인상적이다.

[보충자료]

○ 악과 선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불을 신성시하고 지혜의 신인 ‘아후라’를 유일신으로 인정했던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프리메이슨들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 오페라에도 프리메이슨의 입김이 작용했다. 라모가 프리메이슨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본을 담당했던 루이 드 카우삭이 프리메이슨 프랑스책임자의 비서였던 것,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었던 모차르트 역시 자신의 작품 ‘마술피리’에서 악을 이기는 선의 대변자로 조로아스터(자라스트로)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 베이루트 출생의 세계적인 연출가 피에르 아уди(Pierre Audi)는 1979년 런던에 알메이다 극장을 설립하면서 혁신적인 연출로 연극계의 주목을 받은 이후 오페라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로 성장하였다. 1988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오페라의 예술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바그너의 링 사이클, 몬테베르디 4부작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2000년에는 네덜란드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을 정도로 이 나라 음악계의 영웅으로 각광받았다.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파리국립오페라, 상젤리제 극장 등의 일급극장에서 객원연출을 해왔으며, 특히 브릿휘슬, 헨체, 탄둔 등의 현대오페라의 보급에 큰 역할을 했었다. 2001년에는 프랑스대통령이 수여하는 레종도뇌르 기사장을 받았다.

○ 지휘자 크리스토프 루세는 1983년 하프시코드주자들의 등용문인 브뤼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프랑스 원전연주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프시코드 주자로서 르와조뤼르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던 바흐의 골드베르크변주곡을 비롯한 다수의 음반으로 각광받았으며, 1991년부터는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르 탈랑 리리크의 지휘자로서 바로크오페라 및 종교합창곡 등에서도 큰 활약을 펼쳐왔다. 전설적인 카스트라토 가수를 다룬 프랑스 영화 <파리벨리>의 음악을 맡았던 이도 바로 크리스토프 루세였다.

***디아파송 금상 ***텔레라마 ffff

라모: 오페라 ‘조로아스트르’

예외적으로 철학적이고 심오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

5막의 장편 오페라 ‘조로아스트르’는 라모가 66세 되던 해인 1749년에 초연된 작품이다. 작곡가의 다른 재기발랄한 작품들에 비해 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 개성만점의 다양한 춤곡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이 조화를 이룬 감추어진 걸작이다. 작품은 제목 그대로 BC6세기경에 조로아스터교(배화교)를 창시했던 조로아스터(조로아스트르-자라투스트라)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작품의 선의 상징인 조로아스트르와 악의 상징인 아브라마네의 대결, 역시 선과 악을 대변하는 여인들인 아멜리트와 에리니체와의 엇갈린 사랑, 에리니체의 회심, 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선한 빛의 위대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모는 각 배역의 개성에 맞추어 특징적인 아리아들을 배분하였으며, 클라리넷을 도입하여 보다 색채적인 관현악 반주를 만들어내었다. 이 시대 최고의 연출가 피에르 오디의 상상력 풍부한 무대와 프랑스 바로크 음악계의 총아 크리스토프 루세의 탄탄한 해석이 뒷받침된 명연이며, 특히 현역 오페라극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 남지 않는 18세기 건축물인 스웨덴의 드로트닝홀름 극장의 오리지널 무대장치들을 적극 활용한 변



베르디: 오페라 박스 Special Price

박스셋으로 재 구성한 3개의 베르디 오페라

Opus Arte OA 0980BD

[배역]

Bryn Terfel / Paolo Gavanelli / Marcelo Alvarez / Christine Sch?fer / Jos? Cura / Dmitri Hvorostovsky / Yvonne Naef / Ver?nica Villarroel Orchestra & Chorus of the Royal Opera House

팔스타프 OA0823D

새롭게 복원된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스펙터클한 개관작품.
2002년 디아파송 도르 수상,
2002년 샤를르 크로스 아카데미 그랑프리 수상.

리골레토 OA0830D

70년의 장구한 전통을 지닌 글라인드 본 오페라 페스티벌에서의 2000년 공연 실황.

일트로바토레 OA0849D

엘리아 모신스키의 새로운 로열 오페라 하우스 연출작 속에서 호세 쿠라가 베르디의 불꽃처럼 열정적인 오페라의 화려한 스타 캐스트를 리드한다.

***레퍼트와 10점



東亞日報

2007년 6월 1일 (음력 4월 16일) 금요일 단기4340년

지친 영혼 어루만지는 세계의 선율

문화공감

KBS1FM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앨범



잔 치아니의 '터닝'(Turning), 두 번째 곡은 데이비드 란즈의 'return to the heart'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진 두 곡을 특히 좋아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28일 오후 두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다.

LG아트센터에서 열린 데이비드 란즈의 독주회를 객석에서 수잔 치아니와 함께 관람했던 것. 무대 뒤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치아니는 '터닝'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기도 했다.

'세상의...' 음반을 듣다보면 클래식, 가요, 팝만 아니라 이 세상엔 정말 들어야 할 음악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세계 각국의 언어와 악기로 연주되는 아릿한 향수와 설움이 담긴 노래와 아름다운 합창음악들...

특정 장르, 작곡가, 지휘자의 곡에 매몰돼 가는 음악적 취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구촌 곳곳에서 꽃으로 피워낸 살아 숨쉬는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5년 전 '세상의 모든 음악'을 기획하고 현재까지 연출하고 있는 김혜선 PD는 "음악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한다.

가 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황혼을 등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무겁지만, 얼굴엔 편안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클래식과 국악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KBS 1FM(93.1Mhz)에는 다소 특이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바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방송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다. 북유럽 켈트 음악부터 아프리카, 남미, 포르투갈, 그리스 음악까지... 4년이나 진행을 맡았던 텔런트 김미숙 씨의

나지막하면서도 여유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던 그 방송이다.

퇴근길에 차 안에서 듣다가 '집에 도착했는데도 내릴 수 없었다'는 평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프로그램이다.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최근 발매된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앨범(아울로스 미디어)의 제목이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한 대목에서 따온 이 제목은 저녁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 '음악을 들으러 숲으로 가다'(1집), '섬,'(2집), '저녁, 길모퉁이 카페'(3집) 등 시적인 제목을 단 '세상의 모든 음악' 앨범은 국내 월드뮤직 음반 중에는 독보적인 인기 시리즈다.

4집의 첫 곡은 전자음악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수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

법정스님 오디오북 김세원' 낭독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시대의 존경 받는 어른 법정스님과 우리 시대 최고의 목소리 김세원의 만남.



《신문보도》
5월 1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5월 18일 중앙일보

법정스님이 전하는 삶의 이정표를 이 글은 김씨가 6~7분 분량으로 낭독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방송인 김세원이 낭독.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저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정직과 청빈 [저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저서: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시간 밖에서 살다 [저서: '오두막 편지' 중에서]

산천초목에 가을이 내린다 [저서: '오두막 편지' 중에서]

당신은 행복한다 [저서: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법정 스님 2005년 길상사 봄 법회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폭발적인 음반**

적도의 살사 분위기와 브라질 삼바 트위스트의 절묘한 조화

TRANSATLANTIC NON-STOP

대서양 너머 논스톱

FXCD316



에콰도르 칠레 출신의 알티플라노와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시야부시 케리미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폭발적인 음반을 만든 것인데, 소재목 그대로 아제르바이잔과 남 아메리카의 음악을 담고 있다. 보컬, 기타, 팬 플루트, 삼포니아, 퍼커션, 베이스 기타 등 다양한 악기들이 내는 음색도 매력적이고, 적도의 살사 분위기와 브라질 삼바 트위스트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매력적인 동양의 미감이 듣는 이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한다.



Kirkelig kulturverksted



표지사진
클라우스 텐슈테트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6월호
통권 제 23호 발행 : 2007년 5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